

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6項 交通放送 商業廣告承認에 관한 건의안은 原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交通放送 商業廣告 承認에 관한 建議案

發意年月日 : 1991.12

發 意 者 : 金 鐘 雄

贊 成 者 : 裴 丁 淑

崔 鐘 德

1. 注 文

- 1,000萬 서울市民을 代表하는 서울市議會의 本然의 義務中 가장 重要한 것은 市民이 낸 稅金을 어떻게 有效適切하게 使用하는가에 대하여 監觀·監督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 交通委員會所管 中 交通放送本部의 豫算 75億원 中 80%에 該當하는 60億원이 서울市民이 稅金으로 構成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서울市民의 稅 負擔 輕減과 交通放送本部의 經營 合理化를 為하여, 商業廣告를 全面 許容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政府에 建議합니다.

2. 提案 理由

1990年 6月 開局한 交通放送은 '91年度豫算 64億원, '92年度豫算 75億원 中, 겨우 協賛廣告 12·3億원의 收入 外에는 全額 우리 서울市民의 稅金으로 運營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0萬 首都圈 住民 모두의 첫째 關心事인 가장 苦痛스러운 交通問題를 다루는 放送이 되고 보니 그 짧은期間內에 聽取率이 가장 높은 放送으로 그 위치를 確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政府에서는 아무런 法

的根據도 없이 “地方自治團體가 運營하는 放送이므로, 全面의인 商業廣告 實施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理由로 昨年에 서울市에서 要請한 建議에 대하여 “商業廣告 不許”라고 回信하였습니다.

그간 本 議員의 調査에 依하면, 法의으로도 嚴格히 規制되는 條項을 찾을 수 없으며 다만, 過去 經濟規模가 長을 때 廣告市場이 좁은 關係로 兩大放送社가 商業廣告市場을 갖고 競爭한 것은 事實이지만, 지금은 經濟規模가 膨脹하여, 오히려 中小企業은 廣告市場의 不足 現象으로 TV는 말할 것도 없고, 라디오 電波마저 利用할 수 없는 實情입니다.

○ 本 議員의 提案 理由를 要約하면,

가: 짜증스러운 交通難, 곳곳에 山積한 쓰레기問題, 治水, 消防, 環境保存, 庶民住宅 供給 增大, 低所得層 지원 및 社會福祉事業 increase等 緊要緊急한 豫算事業이 山積해 있는데 도 不拘하고, 60億원의 放送運營費를 全額 서울市가 負擔한다는 것은 效率의in 豫算 配定이 아니라 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時期에 出發한 平和放送(PBC)과, 佛教放送(BBS)도 똑같은 特殊放送인데도, 그 放送社들은 商業廣告를 承認하였습니다. 그러나, 聽取率은 交通放送에 比하여 훨씬 뛰어나고 있습니다.

다. 이제 交通放送은 絶對로 서울市民만의 放送이 아닙니다. 그 聽取率이 나 可聽地域을 考慮하면, 中部圈以上, 우리 人口의 半 以上이 受惠者이므로, 受益者負擔原則에 立脚해서라도 商業廣告 許容이 꼭 必要하다고 봅니다.

라. 다른나라의 例를 보면, 佛蘭西 같은 境遇는 教育放送도 商業廣告를 實施하고 있으며, 公營 放送인 우리 KBS도 商業廣告를 實施하

고 있으며, 經濟大國 日本 NHK와
英國 BBC도 늘어나는 製作費를
堪當할 수 없어 商業廣告 實施를
위한 모든 準備를 마쳤다고 합니다.

以上과 같은 點들을 깊이 認識하시어, 우리
의 交通放送도 商業廣告를 承認받아 훌륭
한 裝備와 高度의 技術을 研磨하여 質높은
製作으로, 慢性的인 交通難에 迅速한 情報를
提供하여 交通疏通에 도움을 주고, 켜증스런
運轉者들의 밝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하여,
交通放送本部의 經營合理化와 서울市民
의 稅負擔輕減을 위하여 “交通放送 商業廣告 承認建議案”을 提出하오니, 交通委員會
委員님들께서는 全員一致로 決議하여 주시
길 바랍니다. 끝까지 傾聽하여 주셔서 대단히 感謝합니다.

○委員長 李永和 우리 3대 서울市議會가
지난 8월 開院된 아래 일반案件處理를
위하여 매월 개최되는 臨時會議와 行政事務
監查 및 豈算案 심사를 위한 定期會 등으
로 연일 계속되는 議政活動의 노고에 충심
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들이켜 보건대 충분하지도 못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議政活動에 관련된 資料蒐集과
시책집행에 대한 진지한 檢討를 통해서 잘
못 執行된 施策에 대해서는 잘못을 추궁하고,
잘 추진된 분야는 關係官을 위로, 격려함으로써 日淺한 議政史에 비추어볼 때
우리議員들을 선출해 주신 市民들과 執行部
關係官에게 地方自治의 必要性과 當爲性을
인식시켜주는데 큰 일익을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의정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위원님들께서 평소 議政活動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금년의
議政活動을 거울삼아 내년에도 더욱 내실있고 알찬 의정활동을 우리 다같이 기대해보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提案說明과答

辯을 해 주신 交通局長, 地下鐵建設本部長,
交通放送本部長과 關係官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會議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権 3打)

(17時 22分 散會)

○出席委員

| | | |
|-----|-----|-----|
| 李永和 | 裴丁洙 | 崔鍾德 |
| 李敬雲 | 元松喜 | 郭壽榮 |
| 金康植 | 朴夏榮 | 權純直 |
| 朴泰源 | 方孝吉 | 金笑英 |
| 金鍾雄 | | |

○專門委員

金泰鎬

○出席公務員

| | |
|----------|-----|
| 交通局長 | 尹斗榮 |
| 地下鐵建設本部長 | 禹命奎 |
| 建設2部長 | 崔昌植 |
| 交通放送本部長 | 白錫春 |